



# 오클랜드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 2024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녹) 연중 제18주일

2024년 8월 4일 (제2093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근무시간: 토/일(8am~4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탈출기 16,2-4.12-15

### 화답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제2독서 에페 4,17.20-24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24-35

###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성가]	8시	입당	32	봉헌	213	성체	180	파견	4
	11시	입당	32	봉헌	216	성체	176, 188	파견	4
연중 제18주일	8월 4일(주일)			8월 6일(화)	8월 7일(수)	8월 8일(목)	8월 9일(금)	8월 10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김미숙 말가리다	정미경 말가리다	황혜정 데레사	장희숙 루시아	채성일 토마스	사목회		
독서	김원덕 시몬 김영선 안젤라	최윤기 유스티노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정인경 가브리엘라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장희숙 루시아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미사 전 기도 안내**

- 미사 전 기도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과 공동체 지향 기도를 바칩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 8월 10일(토) : 사목회

■ **8월10일(토) 미사시간 변경 안내**

오전 9시 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참례 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봉성체**

8월 6일(화): 오클랜드, 알라매다

■ **8월 성경 통독** - 코린토 후 : 5,1-8,24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조상희 마리아, 정화봉 로사,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 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손한석 가브리엘, 김정희 올리엠타, 이은자 마트로나,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임희숙 세트리다, 박진영 베드로, 유낙양 베로니카, 김옥자 마리아. 김관수 요한보스코, 이줄리 올리안나

■ **밥나눔 안내**

- 오늘은 첫째 주인 관계로 밥나눔이 없습니다.  
- 밥나눔 봉사 메뉴 신청이 충분하지 않은 주에는 밥나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밥나눔 봉사를 하실 분은 사무실에 연락해주세요.  
- 8월 11일(일) 밥나눔은 밥나눔 봉사회에서 말복(14일)을 맞이하여 본당 전 신자 분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드립니다.

■ **밥나눔 봉사자 회식안내**

- 일시 : 8월 4일(일), 오후 5시  
- 장소 : 밀피타스, 장수장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 회의 : 8/4(일) 교육관 106호  
- 사목회의 : 8/4(일) 1:30 교육관 106호  
- 샌리앤드로: 8/11(일)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라모린다 : 8/10(토)오후1시 Sportsmen's Park

■ **하상회 여름 단합 캠핑**

- 일시 : 8/10(토)-8/11(일)  
- 장소 : Lake Chabot Lookout Ridge Group Camping Site

■ **대건회 여름 캠핑**

- 일시 : 8/31(토)-9/1(일)  
- 장소 :Anthony Chabot RV Hookup Site

■ **황금빛인생여행**

- 여행지 : 카멜미션(소요시간 2시간)  
- 제1차 출발 : 8월 29일(목), 오전 9시, 40명(선착순)  
- 제2차 출발 : 9월 5일(목), 오전 9시, 40명(선착순)  
- 1차와 2차 출발 중 하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7월 28일부터 8월 18일(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본당 친교실

■ **복가주 성령대회**

- 일시 : 8월 10일(토), 오전 8:30-오후 6시  
- 장소 : 새크라멘토 한인천주교회  
- 신청 : 본당 성령기도회  
- 당일 버스 출발: 오전 6시 30분, 성당(30분 전까지 모여주세요)

■ **제대꽃 봉사자 모집** -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성경 전체 필사 전시**- 육순화 아가다 자매님

■ **안나요아킴 라인댄스**- 셋째주, 넷째주 밥나눔 후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본당 한국학교 개강**

- 일시 : 9월 7일(토), 오전 10시  
- 등록 문의 : [standrewkimks@gmail.com](mailto:standrewkimks@gmail.com)  
전화 : 구이오-이칠공-칠육칠팔(교감 김경숙 로사리아)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함께 해주세요**

- 본당에는 청소 용역이 없습니다. 각 단체 모임이나 구역 모임 후에 나오는 쓰레기를 치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본당 어르신 바비큐를 준비해주신 사목회와 토요일봉사팀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도미니코 (8/8) : 김원조, 강길준
- \* 도미니카 (8/8) : 성동화
- \* 라우렌시오 (8/10) : 허순구, 유병희, 허수원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대영광송

**주** 일과 축일 또는 대축일 미사에서는 자비송 (Kyrie) 다음 대영광송을 바칩니다. 때로는 두 기도가 순차적으로 별다른 구별 없이 바쳐지는 탓에 마치 비슷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자비송이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며 자비를 간청하는 기도라면, 대영광송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찬미가입니다.

대영광송은 성경에 나오는 찬가를 제외하고 교회가 만들어 바친 가장 오래된 찬미가 중 하나입니다. 밀라노 칙령(313년)으로 그리스도교에 자유가 주어진 이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찬미가와 기도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것은 정통 교리를 담고 있지 않아 교부들과 공의회로부터 견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4차 톨레도 교회 회의(633년)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찬미가들을 폐기하였는데, 그때도 대영광송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보존되었습니다.

대(大)영광송이라는 이름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바치는 '영광송'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의 찬미가'(hymnus angelicus) '천사들의 찬미'(laus angelorum) '노래하는 천사의 찬미'(laus angelicorum)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대영광송의 첫 구절이 예수님 탄생 때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루카 2,14)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대영광송은 여러 전통의 찬가들이 시간을 거듭하며 하나로 모여져 완성된 찬미가입니다. 하지만 그 가락(멜로디)은 각 지방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형태가 단순한 밀라노 대영광송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로마 성가집」(Graduale Romanum)에 실려 있는 열다섯 번째 대영광송인데, 이는 시편을 읊듯이 바치는 모자라빅(Mozarabic) 전례의 '주님의 기도' 곡조와 유사합니다.

「미사경본 총지침」에선 대영광송이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된 고귀한 찬미가"(53항)로서 그 문구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작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노래하고, 그다음은 모두 함께 또는 백성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합니다(성가대 홀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로 바치지 않을 경우, 모두 함께 또는 양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하지만, 그 성격상 기쁨과 찬양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노래로 바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매주 바치는 대영광송의 의미를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주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미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도록 합시다.

###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영어미사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	48명	151명	199명

주일헌금		2차헌금		영어미사	교무금	Bishop's Appeal	황금빛 인생	한국 학교	성소	빈첸시오	선교
8시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자(8), 이범준(7), 강시구(5-8), 박호영(8), 조진행(8), 박명호(7-12), 이경섭(7-8), 이종규(1-6), 한치용(7)						이범준 이종규		이육경	이범준	박명호	

